

보도시점

배포 후 즉시

배포

2026. 6. 9.(화)

## '미래대응기금' 신설 등 초과세수 활용 방안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.

### <보도내용>

- 2026.6.9. 한국경제는 「초과세수 주도권 놓고 재경부-예산처 신경전」 기사에서,
  - “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역대급 초과세수를 어디에 투입할지를 놓고 정부 부처가 ‘밥그릇’ 싸움을 벌이고 있다”며, “기획예산처는 별도의 기금을 신설하겠다는 구상”을 내놓고 “재경부는 초과세수 중 10조원가량을 국부펀드 몫으로 반영하길 원했지만 예산처에서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”고 보도하였습니다.
- 2026.6.9. 경향신문은 「반도체 초과 세수로 ‘미래대응’...지속가능할까」 기사에서,
  - “반도체 호황으로 막대한 규모의 초과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기획예산처가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”며, “전년 대비 일정 규모 이상의 세수 증가분이나 중기재정운용계획상 세수전망치의 초과분을 기금재원”으로 삼고 투자처는 “AI, 반도체, 차세대 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 분야가 될 것이 확실시”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.

### <정부 입장>

- 미래대응기금 신설, 국부펀드 투자 등 초과세수의 구체적 활용 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기획예산처 예산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정애 (044-214-2330)
		담당자	서기관	하치승 (hcs017@korea.kr)
	재정경제부 전략경제총괄과	책임자	과 장	정여진 (044-215-4550)
		담당자	서기관	유형세 (hyongseyoo@korea.kr)